본회 당진지회 결성

- 지회수 37개로 늘어, 지회장 박권옥씨 선출 -

본회 37번째 지회인 당진지회가 지난 8월 28일 당진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총회를 갖고 정식 결성됐다.

김은성 본회 회장을 비롯한 충남지역 지회장 및 임원, 김낙성 당진군수 등 관내 기관단체장 및 양록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성총회에서 당진지회는 지회정관을 채택하고 초대 지회장 등 집행부를 선출했다. 지회장에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지회결성을 주도했던 박권옥씨가 선임됐다.

박권옥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진지회 설립으로 절편녹용 수입추진 등 어려운 상황을 단합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당당한 생산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양록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호소했다.

본회 김은성 회장은 치사를 통해 "당진지회 설립은 비록 늦었지만 협회 기반강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앞으로 지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회중심의 양록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또 당면현안인 절편녹용 수입추진 상황 및 사슴농가 자가도축 허용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자가도축을 위한 시설기준 제정 및 운용시 지회장을 통한 시설확인서 발급 등 실질적인 임무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낙성 당진군수 및 김천환 군의회 의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양록산물 품질향상, 브랜드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회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지회결성을 축하했다.

이날 결성총회는 김은성 양록협회장, 김낙성 군수, 김천환 군의회 의장을 비롯, 이덕연, 이은규, 윤기천, 윤수일, 김명선, 이은호 군의회 의원, 이기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남 농협 군지부장, 김기원 축협조합장, 송석오 당진군 축산과장, 심준택 고대농협조합장, 이은홍 고대면장, 안병식 양록협회 감사, 김대중 이사, 신구영 공주지회장, 이성복 아산지회장, 이민재 서산지회 부지회장 등 내외인사가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 임원명단 : 지회장 박권옥, 부지회장 김광수, 감사 박희상, 서정두, 운영위원 한창전, 안재상, 호철규, 이석존, 김연표, 이재극, 사무장 김영철 한국양록